

光日春秋



오덕성  
울송대 총장

얼마 전 영국의 세계적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가 주최한 아시아대학 총재 컨퍼런스에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울송대의 국제화 전략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더불어 그 자리를 통해 아시아 유수의 대학 총장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었다. 총장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대학평가의 중요성과 AI를 고등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발표된 아시아 10대 대학의 순위는 필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이 당연히 순위에 포함될 것이라 기대하며 자리를 지켰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발표된 10개 대학 중 무려 7개 대학이 중국 대학이었고, 특히 중국의 저장대학교(Zhejiang University)의 성장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저장대학교의 성공 배경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융합 교육 'AI+X'에 있었다. 교양대학에서 인문학적인 소

AI+X 시대의 새로운 도전

양 교육을 받듯이 학생들의 AI 기초 소양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각 전공 분야와 융합하여 고등교육 전반에 녹여냈다.

이러한 AI 기반 교육 혁신을 바탕으로 학업이 연구, 창업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저장대학교의 혁신대학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특별한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적인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창업자인 랑원펑을 배출하게 되었고, 딥시크 AI는 저비용 고효율 모델 개발을 통해 기술 접근성이 향상되고 중국-서구 간의 AI 기술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냈다.

오늘날 세계는 'AI+X'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혁신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AI+제조업'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는 'AI와 전공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AI를 도구로 보는 것을 넘어 AI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술인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를 결합하여 'AI+DS'를 핵심역량으로 교육체계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도 '특성화 분야의 전공과 AI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취업시장에서도 과거 '인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AI 역량을 기본소양으로 갖추고 전공 및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AI+X'형 학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인생 2라운드를 준비하는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퇴직 평균 연령이 49.4세인 현실에서 AI는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을 없앴고 대학에서 4년간 배운 전공으로 평생을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경험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워가려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실감한다.

AI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대학도 청년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의 장, 특히 AI와 연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나 언제든지 다시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AI와 함께하는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AI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기회를 갖아갈 수도 있고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실력과 경험을 AI와 연결시켜 'AI+X'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성 있는 '새로운 도전'만이 그 기회를 열어 놓을 수 있다. 대학은 이미 문턱을 낮추고 넓혀 놓았으니 보다 많은 이들이 기회의 열쇠를 쥐게 되기를 희망한다.

종교칼럼

투표 한 장의 무게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성경 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왕이 없는 시기를 보낸다. 물론 지도자는 있어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지만 왕이라는 통치자를 세우지는 않았다. 후에 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백성들이 요구하여 하나님의 허락으로 제비뽑기를 통하여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부유하고 존경받는 집안 출신으로 준수한 외모와 큰 키를 가졌다. 그는 본래 겸손하고 순종적인 성격 소유자로 묘사된다. 초기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된 후 점차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여 다윗을 질투하고 끊임없이 위협했다. 그의 통치는 불안정하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였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고 전장에 나가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된다.

반면 다윗은 유다 지파 이새의 막내아들로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으며 음악과 시에 재능이 있었다. 사울이 잘못된 길

을 갈 때 비밀리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를 시기하여 사울왕의 박해를 받으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급기야 미친척하며 타국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까지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되어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된다. 사울은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였지만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며 돌아키는 모습을 보였다.

'깃털의 무게'라는 그림책이 2020년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당시 고등학교 재학생이던 김좌이안이라는 학생의 작품이다. 줄거리는 대략 이러하다. 바다 한 가운데, 두 도사가 섬처럼 떠 있었다. 이곳에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지는' 새들이 살았다. 새들은 편지에 무거운 마음을 담아 보냈고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졌다. 편지 배달은 마음이 가벼운 새가 맡았다. 어느 때처럼 두 도시를 오가던 편지 배달부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이 무거운 편지를 받으면 새들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걱정은 점점 더 커졌고 편지 배달부 새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다. 이 무거운 편지들을 꼭 짊어야 할까? 결국 마음의 걱정과 편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편지 배달부 새는 넓은 바다 한 가운데에 빠지고 만다.

제발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여 마음이 무거워져 절망의 바다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처럼 금반 대선에서 나의 투표는 비록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고 몇 그램 되지는 않지만 그 무게만큼은 무겁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을까, 훗날 나의 투표의 결과가 잘못된 결과로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쫓는다. 대통령 후보가 속한 그 당의 세력과 그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많은 공약들을 살펴보고 절대 지지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한 표를 행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국민들이 선택한 이 투표지는 그동안 받은 절망의 무게만큼 무겁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만큼 무겁다.

이 무거운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하고 싶은 거 다해'라는 허락이 아니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루어 하는 많은 정책과 공약들을 실현함에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국민 간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후보의 정책도 면밀히 살펴보고 비록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지역, 연령층, 종교인 모두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깃털처럼 가벼운 나의 한 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무게 중심이며 균형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됨을 나는 믿는다. 나는 이제 곧 이토록 가볍고 또 무거운 한 표를 던질 참이다. 내가 선택한 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社說

합평 이전 난항 금타...더블스타가 결단하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한 후속 조치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합평 빛그린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느냐 여부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대형 화재로 현 부지에 새로 공장을 짓느냐 아니면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느냐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빛그린산단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매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보상액에 따라 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이 6개사에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은 총 1조2947억원으로 화재 원인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는데 두 가지 약관이 합평 이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가 '원재료 발화 시면책' 조항으로 타이어의 원재료인 생고무에서 발화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최대 보상한도인 5000억원에 크게 못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 큰 장에는 두 번째 걸림돌인 '제조달

특약'이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같은 장소에 지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곳에 지으면 낮은 공장 값어치만 큼만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결국 보험 보상액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것이다. 지역 경제는 합평 이전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약관의 폭넓은 해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회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합평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은 오롯이 소유주인 더블스타가 결단을 해야 할 문제다. 불행한 화재지만 사고를 계기로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더블스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플랜이다. 더블스타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의 상생 방안 등 사고 수습 대책과 함께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대불산단 잇단 사망사고... 'K-조선'에 오명

조선업종이 물려 있는 영암 대불산단에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외국인 2명을 포함해 9명이 사고로 숨졌다.

지난 1월에만 두 곳에서 환기창과 지붕 개량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을 시작으로 3월에는 조선 협력업체 세 곳에서 기립과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4월에는 대기업인 HD현대중공업 공장에서는 물론 사내업체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5월 23일 선박 구조물 업체에서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 목표지침은 대불산단에 대해 중대재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대불산단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밀집한 특화산단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곳이다. 영암은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하는 97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이들 대다수가 대불산단에서 일하고

있다. 대불산단에서 사망사고가 잦은 이유는 작업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안전 장비와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선박 건조 일정에 맞춰 바쁘게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의 현장 점검은 형식적이나보니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다.

포포·영암 등 전남 서남권 7개 시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목표지침의 경우 직원 3명이 259개 사업장의 근로 감독과 노무 관리를 맡고 있으니 제대로 점검이 이뤄질 리 없다.

한국의 조선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탐낼 정도로 호황이지만 현장에선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생사를 떠나고 있다. 죽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감독기관은 위기경보 발령에 그치지 말고 꼼꼼한 현장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찾아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無等鼓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1대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으로 치러진다. 이번 대선은 '12·3 비상게임'과 윤석열의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어 유권자의 관심도 뜨겁다. 대선 후보 TV토론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매일 달라지면서 국민 여론도 요동치고 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호남 출신 5명의 전직 국무총리가 등장한다. 한 때 대선 주자로도 거론됐던 한덕수와 이낙연인데 한

덕수의 화법으로 "저의 한 표를 그(김문수)에게 주기로 했다"고 돌발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 그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다고 강조했고 '괴물독재국가'라는 상징도 만들어 냈다. '민주당이 내란종식이라는 이름 아래 괴물독재국가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는 그의 분석에 호남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45년 전인 1980년 5월 27일 새벽, 우리는 '광주 최후의 항전'으로 이 날을 기억하고 있다. 계엄군의 진격 속에서도 끝까지 전남도청을 지켜낸 시민군의 희생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호남사람'

18민주묘지를 찾아 "저도 호남사람"을 외쳤다. 과거 출세를 위해 호남 출신임을 숨겼다는 의혹 속에서 터져나온 그의 외침은 지역민에게 고민을 안겨줬다. 호남 출신이니 호남인이 무조건 도와달라는 말인지, 호남인을 부정해야 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인지를 구분하기 힘들었다. 호남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언제나 그랬듯, 한덕수는 단 한 번 '호남사람'을 외친 뒤 호남을 떠났고 대선기간 두문불출했다. 이낙연은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듯한

을 지켜낸 시민군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호남은 과거 대선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을 고집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위대한 선택'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반 곁을만 앞서 가라"고 했다. 어쩌면 '호남의 덕'만 보고 살았던 한덕수-이낙연은 호남인보다 너무 많이 앞서거나 뒤처져서 걷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호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기고

생각하며 문제를 푸는 SW 개발자가 인재다



류갑상  
동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요즘은 어느 분야에서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공장 자동화, 병원 진료, 인터넷 쇼핑까지 모두 컴퓨터 기술이 중심이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사람, 즉 개발자나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은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학과 등의 개설과 함께 관련 학과의 입시 경쟁률은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제도와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 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실습 중심의 수업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 창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긍정적이며 우리 사회가 디지털 기반 산업사회로 전

환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양적 확대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많은 대학에서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이론 중심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나 알고리즘을 배우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졸업 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지방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교수 인력, 실습 장비, 기업 네트워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그로 인해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지역 사회의 기술 기반도 함께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기술 중심 교육에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즉 생각하며 일할 줄 아는 인재가 더 필요한 시대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컴퓨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다. 이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나누며, 해결 방법을 설계하는 사고력이다. 이런 능력은 단지 개발자뿐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이다.

따라서 대학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론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보는 프로젝트, 기업과 함께 하는 현장 실습,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등 실전 경험을 수업과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단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스스로 체득하게 만든다.

이러한 경험이 지역 사회와 연결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지역 기업과 협력해 실무를 익히고 그 지역의 문제를 기술로 풀어보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실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도 높인다.

기술 인재가 한 지역에 머물며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된다.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 인재의 흐름을 줄이고 지역의 기술 기반도 강화할 수 있다.

기술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이고 결국 기술의 가치는 사람의 사고와 창의력에서 나온다. 지금 대학이 길러야 할 인재는 단지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기술자,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야말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경 제 부 220-0648 예 향 부 220-0692 (FAX 222-800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222-0195)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